

## 열번째 주(Week 10)

이사야 61:1-11 “위대한 반전” (The Great Reversal)

### 여는 기도: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학기동안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이렇게 다같이 모여 당신의 말씀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가 막바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저희의 마음이 복음의 약속들로 인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약속들로 인해 저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화목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담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이사야 61 장의 말씀처럼 수많은 그림언어(Imagery)로 가득채워진 구절들은 흔치 않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언어들 은 새로운 희망과 시작들을 알리는 신호로서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길고 잘 선별된 언어로 쓰여진 어떤 설교들보다도 복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생기 넘치는 기쁨의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 많은 표현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향수(nostalgia) 불러일으키는데, 그 이유인 즉, 이 표현들이 누가복음 4 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번째 설교에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매일에 걸쳐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반전(the great reversal)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삶의 한 가운데 나쁜 소식들로만 채워진 삶을 살아가던 가난한 자들은 선물과도 같은 기쁜소식을 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지하감옥과 감옥들에 갇혀 살았던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약속됐던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날에 걸쳐 손수건으로 자신들의 눈물을 훔치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주어지고 웃음과 미소의 날들을 마주하게 되는 날입니다. 빛나는 왕관들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던 재(ashes)들은 바람에 흩날립니다. 단정치 못하고 생기가 없던 슬픔의 옷은 위대한 연회에 걸맞게 축제를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옷들로 대체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생기고는 찾아볼 수도 없던 막대기와 같이 자신들을 바라봤던 자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오크나무와 같이 크고 굳건히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했던 수십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와 새로 밝아 오는 날의 햇볕 가운데로 유유히 걸어나왔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만연했던 불의와 억압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고, 한때 감옥에 수감되었던 자가 자기를 27 년동안이나 가뒀던 바로 그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선서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희망은 만델라와 같은 국제적인 영웅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학비를 충당해 나갈지 의아해 했지만, 마침내 졸업장을 손에 쥐고 지금 막 졸업식장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도래한 새로운 날을 마주하며, 가슴 속 깊은 것에서 흘러나오는, 멈출 수도 없고 (그리고 멈추고 싶지도 않은) 웃음소리로 가득찬 자신들의 입가를 발견했던 사람들을 묘사한 시편 122 편의 장면과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전들을 고대합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표면을 넘어 그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유있어 보이던 겉표면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수많은 상처들로 점철된 또다른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이 위대한 반전을 우리가 갈망하고 염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또한 이 반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하심(goodness)과 신적 평안(shalom)이 어디로 부터 찾아올 것인지, 그 근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힘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지고 자라나게 됐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또한 이사야 61 장의 위대한 반전들이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신들의 삶이 실제 살아왔던 삶의 모습보다 더 흥분되고 더 성취감은 가져다주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또한 자신들의 결혼생활이 그 현실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 이상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평생토록 실망해 왔던 어른 아이(adult child)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자신들의 은행계좌는 가득 차 있으나 그 마음이 공허한 자들, 혹은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마음은 가득 차 있으나 가난한 생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도무지 사랑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외로운 자들과 열등감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 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나타난 이사야의 예언자적 선포와 언어들은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때(그리고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 다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빈민가에서 자라왔던, 12 살 남짓의 한 한국인 여자아이가 기록했던 시가 한편 있습니다. 이와 관해 더글라스 존 홀(Douglas John Hall)이 언급하듯이, 이 소녀의 말들은 그 시대의 아픔과 정황을 담고 있는 한 소녀의 고백임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이름은 걱정입니다.  
여름 내내, 어머니는 물에 대해 걱정합니다.  
겨울 내내, 어머니는 연탄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한 해 내내 어머니는 쌀을 걱정합니다.  
한 낮 동안에,그녀는 삶에 대해 걱정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녀는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이름은 걱정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술주정뱅이 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눈물과 한숨입니다.

언젠가, 그 날이 오면, 이사야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확증하셨듯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을 것 입니다. 불공평하고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모든 걱정들은 그 종국을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을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한 분을 있는 있는 힘을 다해 가리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 토론해 봅시다:

- 만약 우리가 시를 짓는다면, 어떤 이미지들과 단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 이 “위대한 반전”(“The Great Reversal) 가운데 펼쳐지게 될 일들 중 당신을 가장 흥분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누가복음 4:16-21 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61:1-2 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누가복음 4 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략하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차이에 대한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 오늘은 우리의 성경공부에 마무리를 짓는 날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함으로써 당신은 무엇을 얻어가나요?